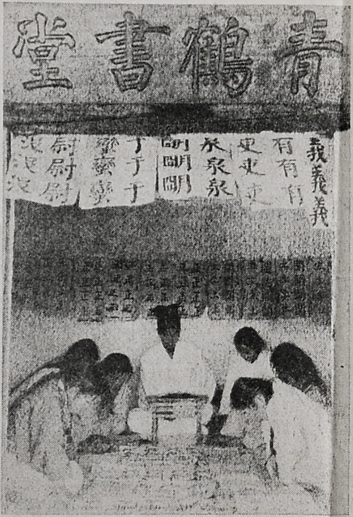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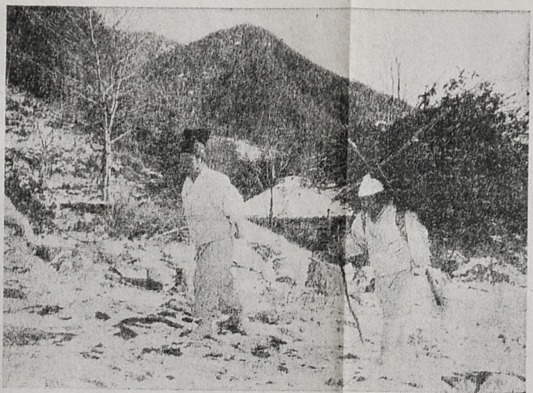
머리땋고 상투틀고…智異山「道人村」

사진르뽀

"현대속에 고대가 숨쉰다"



◇"하늘天 따地"…青鶴書堂…머리를 땋아 늘이고 한복을입고 꿇어앉아 漢書를 읽는 학동들.



◇村長과 나무꾼…青鶴洞사람들은 손수 농사를짓고 나무를 해 완전 자급자족의생활을 하고있다.

◇곡식빻고 까불고…길쌈과 농사일을 맡아 옛생활을 재현하는 青鶴洞여자들.

◇장맛은메주맛…콩은 산속에 재배해 직접 장을담근다. 메주를 돌보고 있는 여자들.

○…智異山 서쪽에 자리잡은 青鶴洞은 文明의 입김이 전혀 가닿지 않은 자연그대로의 마을. 23세대 1백13명의 주민들이 우리 선조들의 생활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바깥세상과 완전히 차단되어있을 뿐 아니라 온갖 문명적인 영향을 한사코 물리치고 있다. 天皇峰기슭에 있는 이 마을은 道人村이라 불린다.

○…아이들은 머리를 땋아 늘이고 어른은 상투를 틀어 남녀노소 모두 우리 고유의 한복을 입고산다. 밭을 갈고 가축을 길러 생계를 꾸려가며 일체의 현대식 교육을거부한채 한문서적을 읽는다 뿐아니라 생활도구며 풍습이 몇백년전 그대로여서「원주민촌」이라 부를만하다.

생활의 규범은 철저한 유교사상이 지배하고 있으며 檀君을 정신적 지주로 모시는 종교적 일체감이 이들을 한데 묶고있다.

○…青鶴書堂엔 30명의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훈장의 지도아래 사서삼경등 유교서적을 낭낭이읊고있다. 여자아이들은 어머니에게 길쌈이며 바느질, 메주뜨는법등을 익히느라 이마에 송글송글땀방울이 맺힌다. 고유의 명절이되면 이마을은 온통민속놀이의한마당을 이루기도 한다. 재기차기, 널뛰기, 연날리기등이 자연스레 펼쳐진다.

「현대속의고대」를 보기위해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만도 날씨가 좋을때면 하루보통 2~3백명에이른다고 한다.

<사진·吳泰善>

◇고유의놀이 그대로…青鶴洞에는 우리고유의 민속놀이가 그대로 남아있다. 씨름한판을 즐기는 어린이들.

불가사리

<34>

朴 養 浩 作

金 珖 顯 畵

동굴속의 작은불빛 ⑨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더군다나 이렇게 마지막날 비까지 와서…자, 이우비를 입으십시요.』

『괜찮아요, 곧 차에 탈텐데요.』

『그래두요, 그때까지만이라두…』

『고마와요. 그나저나 범인은 잡혔다요?』

『그렇게일찍범인이잡히면형사해먹을만하게요. 그러나 꼭잡고 말겁니다.』

『잡혔으면 좋겠어요. 다정한 아버지는 아니었지만그래두 왜, 누가, 무엇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그처럼 잔혹하게살해했는지꼭 알고 싶어요. 일이진행되는대루 저한테연락을 해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물론이구 말구요.』

화장을 하나도 하지 않은 그녀의 얼굴은 핼쑥해보였다.

우산을 교회사람 누군가가 씌워주고 있었지만 그녀는 무척이나춥게보였다.

『저기, 차에 타고 오신분을 아시는 분들인가요?』

『어디요?』

『저쪽에서 지금술잔을 받고 계시는 분들…』

『글쎄요, 전혀…』

『아, 네…그래요, 그럼 잠시 실례하겠읍니다.』

민형사는 아까 눈여겨 보아 두었던자가용에서내린 몇사람의중년신사 옆으로 다가갔다. 얼핏 보기에도 돈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 비가와서…』

누구에게라고 할것이 없이 민형사는 술잔을 들고 서있는 중년의 사나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돈이뭔지…』

그 중의 한사람이 그렇게 중얼거렸다. 민형사가 보니까 자가용 중에서 로얄을, 타고 왔던사람 이었다.

『고인이 뭐든이 없어서 죽었나요』

『그러게 말이야, 돈이 너무 많아서죽었지.』

『고인과 잘 아시는 사이신가요?』

슬며시 민형사는 그렇게 그들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러자 둘어섰던 사람들 몇이 모두 민형사를 쭉 훑어 보았다. 그러더니약속이나한듯이모두입을다물었다.

그러더니슬슬자리마저옮기려고 움직이고들 있었다.

민형사는염치 불구하고 그들중의하나에게 따라붙으면서 말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민형사 입니다만…』

상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않았다.

『고인과어떤 사이 신지…』

『아, 나 교회에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딱 잘라서 그렇게 말했다.

이런, 제기랄!

민형사는 속으로 그렇게중얼거렸다. 전혀 소용이 없는일 같았다.

추위에 질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장의차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삐삐삐삐…

민형사가 허리에 차고 있던 무선기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 민형사는 재빨리 허리춤에 손을 넣어서 삐삐소리를 꺼버리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전화, 사무실로 전화를 하라는 신호였다. 묘지관리 사무실, 그때 거기 전화가 있었지…민형사는 재빠른 걸음으로 사무실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다.